

2027
완성

2027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3 | 부여노정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황정경* 일자를 어찌하여 그릇 알고

인간에 적강하여 평생에 병이 많아

북창하에 누웠으니 뜻대로 하기 어렵도다(화자가 자신의 전생과 규방에서의 병약한 처지를 연결하여 고뇌를 드러냄.)

복희씨*를 꿈꾸던가 아침에 까치 소리 과연히도 새롭도다

임금님 명령 전하는 소리 늘어지게 나는구나(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아들의 임명 사실을 듣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

갑인년 방소린 듯 을묘년 감시런 듯(대구법)

홍문관 직중 아이 편지를 올리거늘

전하는 것 얼핏 들어 봉함을 떼어 보니

충청도 부여 현감 임금이 결정하니(아들이 충청도 부여 현감(지방관)으로 부임됨. '화자는 아들이 충청도 부여의 현감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감촉하다(아들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입신양명의 상황을 화자가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성공한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냄.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안악 영감 가문에 단비더니

오늘날 이 희보(아들의 부임 소식)는 그 더욱 망외로다

비록 소읍이나 네게는 고향이라

착할사 우리 아들 일마다 기특하다(아들에 대한 자부심)

정공등* 얻어 내서 병든 부모 쾌차하니(아들은 약재를 구해 와 병든 부모의 병이 낫게 하였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풍은 만실하고 시절은 삼월이라

친척은 만당하며 시우는 축축하여

이화도 향기롭다(후각적 심상, 시간적 배경) 풍백을 의논하며

성은이 거듭되니 이 역을 피할쏘냐(설의법)

청하 초길일에 영양으로 발행하니

친척이 기뻐하고 벗들이 축하하니

범 같은 많은 하줄 조수같이 밀려들어(직유법을 통해 상황을 제시함. '행차를 '범 같은' 하줄, '조수같이' 밀려드는 모습으로 그려 위세를 보여 줘.'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운총 좋은 말에 쌍가마를 높이 실어

청풍은 선배 되고 명월을 후배 삼아 추종이 십 리로다(따르는 행렬이 십 리나 된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아들의 부임 행차가 성대함을 나타냄.)

좌우에 권마성*은 위풍이 불만하다

당시에 듣던 소리 반갑기 그지없다

독교를 후거하니* 별수는 전혀 없네

예천 땅 오천내를 발 아래 굽어보니

용궁읍을 얼른 지나 우두원 숙소하고

삼산을 잠깐 들러 옛 벗님 찾아보고(화자가 사회적 제약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개인적 인연의 대상을 방문해 회포를 푸는 것 ①)

수향에서 배를 탈 때 어웅을 즐기는 듯(직유법. 여유롭게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남. “어웅”은 화자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략)

옥천을 다시 보니 반석이 더욱 좋도다

삼십 년 떠난 동생 옥성 와 만나 보니(화자가 사회적 제약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개인적 인연의 대상을 방문해 회포를 푸는 것 ②. ‘화자는 여정 중에 삼십 년 만에 헤어졌던 동생을 만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에 고생 많아 청수한 그 얼굴이 반백이 다 되었네

손잡고 눈물 흘리니 회포도 엄억하다*

앞길이 탄탄하니 옛 말씀 다할쏜가 창연지심 그지없다

패거리 큰 숙소에 북풍이 마주 부니

[십오야 밝은 달에 성신을 거느리고

백련화 한 가지가 가냘프게 날아들어

못사람 우러르는 중 지재현 하울 적에*

이 좋은 이 세계를 남에게 보이고자]([: 한밤중 달빛이 비치는 경치를 다른 사람들도 즐기게 하고 싶다는 소망이 드러남.)

행인이 피곤해하니 주막을 들러 가며

가마 메어 끄는 말이 편토록 하령하니

앞뒤에 다리 떨기 백 배나 더하구나

연산에서 말을 갈아 채찍질 다시 하니

채석강 뱃머리가 여울을 만나는 듯

먼지에 모인 때를 백마강에서 없애니

금회가 탁락하야* 선분*이 적을쏘나

고란사 청풍전은 본 듯이 알거니와(화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장소를 여행 도중에 방문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조령재 청풍경을 앉아서 보겠노라

노성현 은진미륵 이제야 친히 보고

선경을 얼핏 보며 부여로 돌아드니

향기에 생명거동 호수입식 책전립이*

하룻날에도 기묘한데 세 번을 알현하네(부여에 도착하자 환영해주는 모습을 드러냄.)

오리정 넓은 뜰에 꿀벌이 모이는 듯(직유법을 통해 부여 관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묘사함.)

전후 사령 걸친 옷과 급창의 청천익*은

개암이 잣는 곳에* 오색이 어리었네

삼현 육각은 천지가 진동하니(과장법)

백제 적 도읍이라 오히려 기풍 있도다(‘화자는 부여에 이르러 백제 옛 도읍의 기풍을 느낀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문을 크게 열고 내아로 모실 적에

염정성 수양버들 그늘도 한가롭다

— 연안 이씨, 「부여노정기」

*황정경: 도가의 경전. 신선이 이 경전의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귀양 온다고 함.

*북희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여기서는 태평성대를 의미함.

*정공등: 껍질과 열매를 약으로 사용하는 식물.

*권마성: 말이나 가마가 지나갈 때 그 앞에서 하줄들이 목청을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

- *독교를 후거하니: 말 한 마리가 끄는 가마를 뒤에 세우니.
- *엄억하다: 가슴을 덮는구나.
- *지재현 하울 적에: 고갯마루에 나타날 때에.
- *금회가 탁락하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이 뛰어나니.
- *선분: 신선의 연분.
- *향기에 생명거동 호수입식 책전립이: 기생들의 생글거리는 모습과 범의 수염을 하고 선 무관들이.
- *청천익: 푸른 옷소매.
- *개암이 잦는 곳에: 헤어져 형궤 대어 기운 곳에.

2027
완성

2027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3 | 부여노정기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황정경* 일자를 어찌하여 그릇 알고
인간에 적당하여 평생에 병이 많아
북창하에 누웠으니 뜻대로 하기 어렵도다

북희씨*를 꿈꾸던가 아침에 까치 소리 과
연히도 새롭도다
임금님 명령 전하는 소리 늘어지게 나는구
나

- [A] 갑인년 방소린 듯 을묘년 감시런 듯
홍문관 직중 아이 편지를 올리거늘
전하는 것 얼핏 들어 봉함을 떼어 보니
충청도 부여 현감 임금이 결정하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감축하다

작년에 안악 영감 가문에 단비더니
㉡오늘날 이 희보는 그 더욱 망외로다
비록 소읍이나 내게는 고향이라
㉢착할사 우리 아들 일마다 기특하다
정공등* 얻어 내서 병든 부모 쾌차하니
화풍은 만실하고 시절은 삼월이라
친척은 만당하며 시우는 축축하여
이화도 향기롭다 풍백을 의논하며
성은이 거듭되니 이 역을 피할쏘나
청하 초길일에 영양으로 발행하니
친척이 기뻐하고 벗들이 축하하니
㉣범 같은 많은 하줄 조수같이 밀려들어
보운총 좋은 말에 쌍가마를 높이 실어
㉤청풍은 선배 되고 명월을 후배 삼아 추종이 십
리로다

좌우에 권마성*은 위풍이 불만하다
당시에 들던 소리 반갑기 그지없다
독교를 후거하니* 별수는 전혀 없네
예천 땅 오천내를 발 아래 굽어보니
용궁읍을 얼른 지나 우두원 숙소하고
삼산을 잠깐 둘러 옛 벗님 찾아보고
수향에서 배를 탈 때 어옹을 즐기는 듯
(중략)

옥천을 다시 보니 반석이 더욱 좋도다

㉥삼십 년 떠난 동생 옥성 와 만나 보니
힘든 일에 고생 많아 청수한 그 얼굴이 반백이 다
되었네

손잡고 눈물 흘리니 회포도 엄역하다*
앞길이 탄탄하니 옛 말씀 다할쏜가 창연지심 그지
없다

패거리 큰 숙소에 북풍이 마주 부니
십오야 밝은 달에 성신을 거느리고
백련화 한 가지가 가냘프게 날아들어
못사람 우러르는 중 지재현 하울 적에*
이 좋은 이 세계를 남에게 보이하고자
행인이 피곤해하니 주막을 둘러 가며
가마 메어 끄는 말이 편토록 하령하니
앞뒤에 다리 떨기 백 배나 더하구나
연산에서 말을 갈아 채찍질 다시 하니
채석강 뱃머리가 여울을 만나는 듯
먼지에 모인 때를 백마강에서 없애니
금희가 탁락하야* 선분*이 적을쏘나
고란사 청풍전은 본 듯이 알거니와
조령재 청풍경을 앉아서 보겠노라
노성현 은진미륵 이제야 친히 보고
선경을 얼핏 보며 부여로 돌아드니
향기에 생명거동 호수입식 책전립이*
하룻날에도 기묘한데 세 번을 알현하네

- [B] 오리정 넓은 뜰에 꿀벌이 모이는 듯
전후 사령 걸친 옷과 급창의 청천익*은
개암이 잣는 곳*에 오색이 어리었네
삼현 육각은 천지가 진동하니
백제 적 도읍이라 오히려 기풍 있도다
수문을 크게 열고 내야로 모실 적에
염정성 수양버들 그늘도 한가롭다

— 연안 이씨, 「부여노정기」

*황정경: 도가의 경전. 신선이 이 경전의 한 글자
라도 잘못 읽으면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귀양 온다고
함.

*북희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여기서는 태
평성대를 의미함.

*정공등: 껍질과 열매를 약으로 사용하는 식물.

- *권마성: 말이나 가마가 지나갈 때 그 앞에서 하
줄들이 목청을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
- *독교를 후거하니: 말 한 마리가 끄는 가마를 뒤
에 세우니.
- *엄역하다: 가슴을 덮는구나.
- *지재현 하울 적에: 고갯마루에 나타날 때에.
- *금회가 탁락하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이
뛰어나니.
- *선분: 신선의 연분.
- *향기에 생명거동 호수입식 책전립이: 기생들의
생글거리는 모습과 범의 수염을 하고 선 무관들이.
- *청천익: 푸른 옷소매.
- *개암이 잦는 곳에: 헤어져 형뉘 대어 기운 곳에.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절의 순환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간의 흐
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여러 지명을 차례로 제시하여 여정에 따라 시상
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
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
다.
-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
게 드러내고 있다.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화자는 아들이 충청도 부여의 현감으로 임명되
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 ② 화자는 남편의 부임 행차를 성대하게 묘사한다.
- ③ 아들은 약재를 구해 와 병든 부모의 병이 낫게
하였다.
- ④ 화자는 여정 중에 삼십 년 만에 헤어졌던 동생을
만난다.
- ⑤ 화자는 부여에 이르러 백제 옛 도읍의 기풍을 느
낀다.

3.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은?

- ①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점차 심화되
고 있다.
- ② 꿈과 현실을 대비하여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가 보고 겪은 일을 차례
로 그려 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빠르게 교차하며 회한과 성찰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여 형식적 안정감을 주
고 있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뜻밖에 찾아온 기쁜 소식에 대한 화자의 벅
찬 감정을 드러낸다.
- ② ㉡: 자식의 효성과 됬됨이에 대한 화자의 대견
함을 드러낸다.
- ③ ㉢: 아들의 공적 부임 행차의 모습을 비유를 통
해 드러낸다.
- ④ ㉣: 벗과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을 자연물에 빗
대어 드러낸다.
- ⑤ ㉤: 오랜 세월 헤어졌던 혈육과 다시 만나는 장
면을 드러낸다.

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의 부임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
낸다.
- ② 벼슬길에 나아가는 일의 위태로움을 경계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③ 고향을 떠나야 하는 데서 오는 서글픔을 드러낸
다.
- ④ 병이 깊어 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드러
낸다.
- ⑤ 영탄적 표현을 통해 아들의 부임 소식이 큰 기쁨
임을 드러낸다.

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 종결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③ 의문형 종결만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알 수 없는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청유형 종결을 반복하여 함께 길을 떠나자고 권하고 있다.
- 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7. 윗글에 쓰인 단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망외'는 아들의 부임 소식이 바라던 것 이상의 뜻밖의 소식임을 의미한다.
- ② '만당'은 친척들이 모두 과거에 합격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 ③ '추종'은 행차를 따르는 것으로 이를 '십 리'라고 표현해 행차의 규모가 큼을 의미한다.
- ④ '어옹'은 화자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로움에 있음을 의미한다.
- ⑤ '창연지심'은 화자가 동생을 오랜만에 보고 느낀 처연하고 감회에 젖은 마음을 의미한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의 입신양명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드러졌다.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벼슬에 나아가는 일은 효의 실현이자 가문의 경사로 받아들여졌고, 부모는 이를 임금의 은혜에 힘입은 것으로 여겨 감사하였다. 「부여노정기」에도 자식의 부임을 가문의 경사로 받아들이는 부모의 의식이 짙게 배어 있다.

- ① '성은이야 갈수록 감축하다'는 자식의 부임을 임금의 은혜로 여겨 감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착할사 우리 아들 일마다 기특하다'는 자식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는 의식과 연관이 있겠군.
- ③ '친척이 기뻐하고 벼들이 축하하네'는 부임을 가문과 주변이 함께 기리는 경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겠군.
- ④ '병든 부모 쾌차하네'는 자식이 효를 실현한 일로 볼 수 있겠군.
- ⑤ '이 역을 피할쏘냐'는 자식의 입신을 가문의 부담으로 여겨 꺼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겠군.

9.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란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고 있다.
- ② 벼슬을 사양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③ 자식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 ④ 아들의 부임 소식을 전해 듣고 감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임금에 대한 원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많은 사람이 모여든 모습을 '꿀벌'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 ② 과장법을 사용해 천지를 진동할 만큼 성대한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
- ③ 부여가 백제의 옛 도읍이었음을 떠올리며 그 기풍을 느끼고 있다.
- ④ 한가로움 수양버들의 모습으로 도착지의 정경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부임지의 황폐한 모습에 실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11. 밑글에 쓰인 표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역을 피할쏘냐’는 임금의 명을 피하지 않고 받들겠다는 뜻을 강조한다.
- ② ‘이 역을 피할쏘냐’는 부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직접 드러낸다.
- ③ ‘범 같은 많은 하줄 조수같이 밀려들어’는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서 하줄들의 용맹함을 드러낸다.
- ④ ‘이 좋은 이 세계를 남에게 보이고자’는 부여에서 환영받는 상황에서 이를 자랑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 ⑤ ‘백제 적 도읍이라 오히려 기풍 있도다’는 부임지가 낯고 오래된 환경임을 의미한다.

12. 밑글에 나타난 여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예천 땅 오천내를 지나 용궁읍을 거쳐 간다.
- ② 화자는 부여를 떠나 한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오른다.
- ③ 화자는 우두원에서 숙소를 정해 머물러 간다.
- ④ 화자는 삼산에 들러 옛 벼를 찾아본다.
- ⑤ 화자는 백마강에 이르러 먼지에 묻은 때를 씻어낸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이 작품은 여정을 따라가며 정경을 그릴 뿐, 계절의 순환을 거듭 제시하여 시간의 흐름을 부각하지는 않는다.

② ‘예천’, ‘용궁읍’, ‘옥천’, ‘연산’, ‘부여’ 등 여러 지명을 차례로 제시하여 여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이 역을 피할쏘냐’, ‘옛 말씀 다할쏘냐’ 등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어와 성은이야’, ‘착할사 우리 아들’ 등 영탄적 어조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범 같은’ 하줄이 ‘조수같이’ 밀려든다는 비유로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2. 정답 ②

화자는 행차를 ‘범 같은’ 하줄과 ‘조수같이’ 밀려드는 무리, ‘위풍이 불만하다’ 등으로 그려 성대하고 위풍당당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의 부임 행차가 아닌 아들의 부임 행차이다.

① 화자는 ‘충청도 부여 현감 임금이 결정하니’에서 ‘충청도 부여 현감’으로 아들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③ 아들은 ‘정공등 얻어 내서 병든 부모 쾌차’하게 하였다.

④ 화자는 ‘삼십 년 떠난 동생 옥성’을 만난다.

⑤ 화자는 ‘백제 적 도읍이라 오히려 기풍 있도다’라며 옛 도읍의 기풍을 느낀다.

3. 정답 ③

이 작품은 아들의 부임 소식에서 출발하여 여러 지명을 거쳐 부여에 이르는 여정을 따라간다. 그 과정에서 보고 겪은 일과 감회를 차례로 그려 내는 구성을 취한다.

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심경이 점차 심화되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는다.

② 꿈과 현실을 대비하여 이상 세계를 동경하는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과거와 현재를 빠르게 교차하며 회한과 성찰의 태도를 부각하는 방식은 쓰이지 않는다.

⑤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여 형식적 안정감을 주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정답 ④

㉞은 ‘청풍’을 앞세우고 ‘명월’을 뒤에 두어 따르는 행렬이 십 리나 된다는 표현으로 벗과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① ㉠은 뜻밖의 기쁜 소식에 대한 벅찬 감정을 드러낸다.

② ㉡은 ‘착할사 우리 아들’이라며 자식의 효성과 됨됨이에 대한 대견함을 드러낸다.

③ ㉢은 ‘범 같은’, ‘조수같이’의 비유로 아들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행차의 모습을 드러낸다.

⑤ ㉤은 ‘삼십 년 떠난 동생’과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오랜 세월 헤어졌던 혈육과의 재회를 드러낸다.

5. 정답 ⑤

‘어와 성은이야’라며 영탄적 표현을 통해 아들이 지방관에 임명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① 부임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을 드러낸다.

② 벼슬길의 위태로움을 경계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③ 고향을 떠나는 서글픔이 아니라 기쁜 소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다.

④ 자신의 병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임명을 기뻐하는 것이다.

6. 정답 ①

‘과연히도 새롭도다’, ‘위풍이 불만하다’, ‘기풍 있도다’ 등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쁨과 자긍심 등의 감정을 드러낸다.

② 명령형 종결을 거듭 사용해 행동을 촉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설의적 표현이 쓰이기는 하나 의문형만 사용된 것은 아니며, 성찰이나 막막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④ 청유형 종결을 반복해 함께 떠나자고 권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한가롭다’로 시상이 마무리되므로 명사로 시상을 끝맺은 것이 아니다.

7. [정답] ②

‘만당’은 친척들이 모두 과거에 합격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들의 부임 소식을 듣고 방문해 집에 친척들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망외’는 바라던 것의 밖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좋은 결과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는 아들의 부임 소식이 화자가 바라던 것 이상의 좋은 소식임을 의미한다.

③ ‘추종’은 남의 뒤를 따라서 좇는다는 의미로 ‘추종이 십 리’라고 표현해 아들의 부임 행차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

④ ‘어옹’은 고기 잡는 늙은이를 뜻하는 말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인물을 상징한다. 따라서 ‘어옹을 즐기는 듯’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창연지심’은 쓸쓸하고 처연한 마음, 아득하고 깊은 감회에 젖은 마음으로 삼십 년 만에 동생을 만나 느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8. [정답] ⑤

‘성은이 거듭되니 이 역을 피할쏘냐’는 임금의 명을 어찌 피하겠느냐는 뜻으로, 그 명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태도를 강조한다.

① ‘성은이야 갈수록 감축하다’는 부임을 임금의 은혜로 여겨 감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착할사 우리 아들 일마다 기특하다’는 자식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는 의식과 연관되어 아들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③ ‘친척이 기뻐하고 벗들이 축하하니’는 아들의 부임을 함께 기리는 경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④ ‘병든 부모 쾌차하니’는 자식이 약을 구해 부모를 낫게 하는 모습으로 효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9. [정답] ④

[A]에서 화자는 편지로 아들의 현감 임명을 알고 ‘어와 성은이야’라며 감격한다.

① [A]는 전란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다.

② [A]에는 벼슬을 사양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A]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식의 부임 소식에 대한 기쁨을 담고 있다.

⑤ [A]는 임금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성은’에 대한 감사를 드러낸다.

10. [정답] ⑤

[B]는 음악이 ‘천지가 진동’하고 옛 도읍의 기풍이 살아 있으며 수양버들 그늘이 한가로운, 성대하고 풍요로운 정경을 그리고 있다. 화자가 실망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① ‘오리정 넓은 뜰에 꿀벌이 모이는 듯’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꿀벌에 빗대고 있다.

② ‘삼현 육각은 천지가 진동하니’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음악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③ ‘백제 적 도읍이라 오히려 기풍 있도다’에서 옛 도읍의 기풍을 느끼고 있다.

④ ‘수양버들 그늘도 한가롭다’로 도착지의 정경을 마무리하고 있다.

11. [정답] ①

‘성은이 거듭되니 이 역을 피할쏘냐’는 임금의 명을 어찌 피하겠느냐는 물음으로, 그 명을 피하지 않고 받들겠다는 뜻을 강조한다. 설의적 표현으로 성은에 대한 감격과 수용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② ‘이 역을 피할쏘냐’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다.

③ ‘범 같은 많은 하줄 조수같이 밀려들어’는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서 하줄들의 용맹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부임 행차의 하줄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이 좋은 이 세계를 남에게 보이고자’는 아름다운 경치를 다른 사람들도 즐기게 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부여에 아직 도착한 것도 아니다.

⑤ ‘백제 적 도읍이라 오히려 기풍 있도다’는 부임지가 낡고 오래된 환경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부임지 정경이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12. [정답] ②

이 작품의 여정은 출발지에서 여러 지명을 거쳐 ‘부

여로 돌아드니'에 이르는, 부여를 향한 길이다. 따라서 부여를 떠나 한양으로 되돌아간다는 설명은 여정의 방향과 어긋난다.

① '예천 땅 오천내를' 지나 '용궁읍을 얼른 지나' 가는 여정이 나타난다.

③ '우두원 숙소하고'에서 우두원에 숙소를 정해 머무름을 알 수 있다.

④ '삼산을 잠깐 들러 옛 벗님 찾아보고'에서 옛 벗을 찾는 모습이 나타난다.

⑤ '먼지에 모인 때를 백마강에서 없애니'에서 백마강에서 때를 씻어 내는 모습이 나타난다.